



[뉴스] OTT 왕좌의 게임 공룡이랑 싸워야하는데 규제 올라가며 걸려 02



Economy

코스피	2024.55 (-14.13)	코스닥	630.18 (+4.54)
금리 (국고채 3년)	1.29 (-0.01)	환율 (원-달러)	1183.10 (+1.50) (7.31)



31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매출은 56조1300억원,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두 분기 연속 6조원대 영업이익에 머물렀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뉴스

# 반도체發 이익 반토막 삼성 “주주환원 연기”

2분기 매출액 56조, 영업이익 6.6조 전년 동기비 각각 4%·56% 감소 하반기 신모델 확대에 개선 노력

삼성전자가 2분기 저조한 실적을 확정했다. 하반기에는 수요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불안한 업황 우려도 내비쳤다. 단, 투자와 개발을 지속하면서 초격차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관련기사 3, 8면>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6조13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전년보다 4%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55.63%나 떨어졌다.

반도체 (DS부문)가 문제였다. 매출액 16조900억원에 영업이익 3조4000억원을 거뒀다. 전년보다 매출은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64%나 쪼그라들었다. 상반기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글로벌 시장 불안 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그나마 시스템 LSI는 이미지센서와 5G모뎀 솔루션 판매 증대, 파운드리 수주 증가로 실적이 좋았다.

IM도 매출액 대비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매출액이 25조8600억원으

로 전년보다 7.8%나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41.6%나 떨어진 1조5600억원에 불과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이유로 들어졌다.

대신 CE와 디스플레이(DP) 부문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년비 매출액이 CE(11조700억원)가 6.4%, DP(7조6200억원)가 34.4%나 성장했다. 영업이익으로는 CE(7100억원)가 39.2%, DP(7500억원)가 436%나 급성장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에어컨 계절적 성수기, 신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이 좋았다고 분석했다.

하반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략제품과 신모델 판매 확대에 주력하며 실적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IM에서는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폴드를 새로 출시하고, 중저가 모델 판매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CE에서는 8K TV 시장 주도권을 이어나가는 한편, 비스포크 냉장고와 의류관리기 등 신 가전 확대를 노린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글로벌 반도체 업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중장기 주주환원 방안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5~7%수익 거뜰... ELS 42조 ‘밀물’

(주가연계증권)

### 저금리 시대 재테크

#### 연 5% 수익 추구 ELS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했다. 미국도 연내에 두차례 안팎의 금리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인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세대는 물론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관심이 재테크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저금리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틈새상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초저금리 시대’다. 정기에금으로는 연 2% 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식시장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적금이자보다 높으면서 적금만큼 안정성을 갖춘 투자상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투자자의 니즈(needs)에 맞춰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발행액(원화+외화)은 4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ELS 발행액은 1분기까지만 해도 17조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증시 회복에 힘입어 2분기에는 2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나온 상품 대

올 ELS발행액 90조 돌파 눈앞 사상 최대 발행 목표달성 전망 리자드형은 출시되자마자 완판

부분이 조기 상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된 상태다.

시장에선 올해 ELS 발행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초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ELS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중호KB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상환 추정금액이 유지되고 있어 ‘재투자 사이클’에 진입된 상태”라며 “하반기에는 ELS발행이 확대돼 사상 최대 발행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기상환 기회가 많은 리자드형 ELS의 경우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리자드형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으로 연 5~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수요가 높다”면서 “때문에 종목보단 지수에 투자하는 리자드형 ELS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

을 채권투자 등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소액으로 주가지수나 개별종목에 투자한다.

ELS는 상품마다 상환조건이 다양하지만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게 일반적이다. 수익이 발생해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되거나 손실을 본 채로 만기 상환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나스닥 등에 투자해 3년의 투자 기간 동안 50% 이상 안 빠지면 약속한 수익률(연 5%)을 주겠다고 한다. 다만 주가가 50% 이상 빠지면 만기 때 손실난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주가가 반토막 나지 않으면 5%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홍콩 H 지수가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다.

이 연구원은 “특정 기초자산에 대한 솔림이 너무 심해 해당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ELS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4개를 사용하지만 지역의 안배가 있는 상품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기초자산 3개를 유지하지만 기초자산의 종류 자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상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일수출규제 설명회, 가득 메운 기업인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일부 수출 규제 관련 기계업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첨단바이오법’ 4수만에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서 상정 유력

인보사 사태로 진통을 겪은 ‘첨단바이오법’이 네번째 도전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기존 약사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규정한 법안이다. 바이오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의약

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지 모른 채 판매가 이루어진 코로onavirus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우려는 더욱 커졌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며 지난 4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어 지난 17일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며 또다시 주저앉은 첨단법은 13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첨단바이오법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의 만을 남겨뒀다. 업계는 오는 8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첨단바이오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8월 夏鬪 예고

휴가 마친 8월 중순 돌입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은 휴가를 마친 8월 중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전날부터 실시한 결과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투표해 3만5477명(제적 대

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이 찬성했다.

기아자동차 노조 역시 투표 결과에서 총원 대비 73.6%의 찬성표를 받았다. 조합원 2만9545명 중 투표자는 2만6290명(89.0%)이었고, 2만1746명(82.7%)이 찬성했다. 파업 반대는 4487명(17.1%)에 그쳤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 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

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